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

光日春秋



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(정치학)

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・북・미 정상이 회동한 것은 분명 역사적 상징성 이 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"적 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 적인 시작을 선언했다"고 할 수 있다. 이 런 역사적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 에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.

첫째, 현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 념과 목표는 무엇인가? 통상 정책은 개 념에서 시작한다.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 해야 정책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 소통 이 원활해진다. 또한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. 반 대로 개념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면 목표 는 흔들리고 정책 효과성은 보장되지 않 으며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심화된

왜 국내 정치엔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이 없나?

는 지난 1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 서 "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공유된 합의가 없었다"고 밝혔다. 이것이 하노이 2차 북 미 회담 결렬의 핵심 이유일지도 모른 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2일 영국 'BBC'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의 '완전한 비핵화' 개념에 대해 상세하 게 설명했다. "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 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 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"이라고 밝혔다.

그런데, 문대통령은최근연합뉴스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 에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. "영변 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 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"이라고 했다. 영변 핵심 시설만 제거해도 북한 핵 능력은 거의 사라지고 비핵화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처럼 들

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흔들리고 핵무 기와 핵 물질이 폐기되지 않은 채 비핵화 협상이 종료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다.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5일 뉴욕에

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"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 체 제로 전환해야 한다"고 밝혔다. 국민의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밝힌 '완전한 비핵화' 개념에 북한이 충실히 따를지 여부다.

둘째,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 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가? 남북 및 북 미 정상 회담을 수차례 했다고 김 위원장 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.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제2 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"김정은 위원장에 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에 미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 다는 말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걱정이 있다"고 밝혔다. 북한은 시종 일관 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. 이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'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'과는 결이 다르다. 분명,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의지와는 상관없다. 따라서 정부는 북핵에 대해 감 성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.

셋째,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왜 기존의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과감한 상

상력을 통해 협치와 공존의 정치를 만들 어 내지 못하는가? 문 대통령은 "세계를 감동시킨 북·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"이라며 "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, 감동시켰으며, 역 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"고 강조

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00년 한 해 동안 야당인 한나라당 이 회창 총재와 청와대에서 세 번 단독 회동 을 했다. 6월 1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설 명하기 위해, 6월 24일에는 의사들이 파 업하는 '의료대란'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동했다. 10월 9일 회동에서는 경제·남 북 문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 해결을 위 해 공동 협력하고 영수회담을 정례화하 기로 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. 당시 청와대는 "상생과 대화 정치 복원을 위한 조치였다"고 설명했다.

문재인 대통령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와 깜짝 회동을 해서 판문점 회동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, 민생 경제, 남북 문제 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파격을 보일 때다. 그래야만 정치 협치도 복원 되고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.

社 說

'엇박자 도시계획 정책' 혈세 낭비 초래한다.

도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엇박자 도 시계획 정책을 펴고 있어 막대한 혈세 낭 비가 우려되고 있다. 전남 지역 시·군들 은 2015년부터 도심 및 중심지 300m 이 내에 행정·의료·금융·교통 등 공공시설 을 집적시키는 일명 '압축 도시'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한편으로는 미래 인구를 과다 설정해 외곽에 공공시설을 배치하 고 있다.

순천·나주·무안 등 이미 15개 시군이 압축 도시 정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했고 목포•여수•보성 등 7개 시군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.

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급격한 인구 감 소라는 전남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미래 인구를 부풀린 채 시가지 외곽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는 점이다. 실제로 23만5000 명인 목포는 31만 명, 28만7000명인 여 수는 37만4000명, 5만8000명인 영암은 12만5000명으로 미래 목표 연도 (2020년 또는 2025년) 인구를 부풀려 시

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외곽 개발과 가지 외곽에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 주변 에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다.

> 이처럼 미래 인구를 과다 설정해 외 곽에 공공시설을 배치한 마당에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 대책으로 도심에 공 공시설을 모으는 압축 도시 정책을 펴 다 보니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. 한쪽에 선 외곽을 개발하고 한쪽에선 도심을 개발하는 엇박자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 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다. 게 다가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면 결국 그 부담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질 수밖 에 없다.

>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압 축 도시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시 범 사업으로 실시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 업 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. 나아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심·중심지 재생 전략 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.

북한 참가 청신호 수영대회 준비 차질 없도록

북한의 '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 회' 참가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면서 세 계인의 눈길이 다시 한 번 광주에 쏠리고 있다. 북한 측은 최근 역사적인 남・북・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러시아 모처에 서 광주시 측과 만나 '5일께 최종 답변을 주겠다'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. 이는 애 초 국제수영연맹(FINA)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사뭇 다른 입장 변화다. 광주시 측 인사는 북측과 대화 과정에서 '참가 쪽 으로 기운 듯한' 느낌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. 일각에서는 북측이 선수단을 대회 에 참가시키되, 응원단 예술단 파견은 고

려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. 광주시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통 해 북한의 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청 해 온 터라 북측의 태도 변화는 매우 고무 적이다.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면 단순히 수영대회 흥행을 넘어 7월 한 달간 세계 의 눈이 광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. 이는 남북한 체육 교류를 바탕으로 한반 도 평화 정착의 소중한 불씨를 살려 내는 전기가 될 것이다.

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북한의 참가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만큼 인프라, 경기 운영 등 전 부문에서 차질 없이 대회를 준 비해야 할 것이다. 특히 하이다이빙 경기 장의 경우 개막 7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우려스러 운 부분이 없지 않다.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머물고 둘러보게 될 광주 도 심 이면도로 곳곳에는 불법 투기 쓰레기 가 넘쳐 나고 광주천 보행로에는 무릎 높 이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한 실정이다. 여 전한 불법 주정차와 현수막도 시민의식 실종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.

광주시는 인프라, 도심 환경, 경기 운 영 등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해 대회 성공 개최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 이다. 시민 참여와 지지 없이 성공한 세 계 대회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절 실하다.

종교칼럼

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

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성인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 수했다. 경찰은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의 서로 모르는 남녀들인 이들이 SNS로 만나서 동반 자살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 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. 이 뉴스의 충 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유명 중견 배우 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.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스타들도 우울과 고통, 자살이라 는 연쇄 고리를 피하지 못하고 이런 선택 을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.

우리나라 10대들은 학교 성적 비관, 부모와 학우들과의 갈등 탓에 매일 한 명씩 자살해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 가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. 최근에는 노령 층에 나타나고 있는 고독사와 노인 자살도 급증하고 있다. 우리가 날마다

자살하는 사회

접하는 뉴스는 자살하는 우리 사회의 단 면을 여실히 보여준다. 이처럼 거의 모 든 연령과 계층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에 매몰돼 있는 것같다.

그렇다면 '자살 문제'를 어떻게 인식 하고 해결해야 하는가? 자살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성인들은 실직을 당 하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극단 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다. 청소년의 경우는 입시 경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 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. 또한 왕따 와 폭력적 댓글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 살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. 특 히 책임감이 있고 강직한 사람일수록 실 직, 명예, 이혼, 빚, 절망감, 수치심 등으 로 자살을 하게 된다.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나 정치인까지도 극단적 선택을

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낙오는 좌절 감으로 누적된다. 그러다 극단적인 상황 으로 몰리면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 지게 된다. 이 같은 치열하고 냉혈적인 경쟁은 더러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죽 임의 문화로 귀결된다. 우울증 환자들이 유독 증가하고,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내

몰리는 사회 구조는 결국 돈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 주의에서 비롯됐다. 돈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착각하고 돈에 만 매달려 집착하는 것은 자칫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. 욕심은 채워도 채 워도 다 채울 수도 없다. 혹여 다 채운다 하여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

왜 사람들은 욕심을 낼까? 불안 때문 이다. 삶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 안 때문이다. 성경은 이런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떠난 인간의 타락, 즉 죄에서 연유한다고 말한다. 타락한 죄 의 뿌리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서로를 극도로 미워하게 하는데 그것의 칼끝이 결국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된다.

예수님은 "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 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살 것"이라고 가르쳤다. 인간을 소 유가 아닌 존재로 보셨다. 존재로써 인간 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고, 하나님이 우 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기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 다.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에 눈으로 보이는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사

랑이 없는 천하는 온전히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.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물질로 채워질 수 없다는 의미다. 사랑이 없는 물질은 이웃도, 친구도, 부모도, 자식도, 심지어 자신도 버리게 만든다. 돈은 얼음 처럼 차가운 것이어서 뜨거운 사랑을 식 히고도 남는다.

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주변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보 낸다고 한다.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대부 분 이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정작 사 고가 발생한 후에야 자책하는 경우가 많 다. 자살 직전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감 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. 사 랑은 상대의 고통을 공유하는 신호이기 도 하다. 상대의 아픔과 슬픔, 외로움을 바로 느끼고 공감하게 해. 그 만큼의 필 요를 공급하게 한다.

신이 죄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간 의 신호를 감지하듯, 병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료하 듯, 사랑하면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.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 진다. 천하보다 귀하게 다가오고, 자신 의 생명 못지않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.



고

기

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

전남의 어촌이 변화하고 있다. 산업화 물결 속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아기 울음 소 리가 사라졌던 어촌에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다. 수산업의 현대화 및 고소 득화 덕분이다. 수산업은 이제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. 어촌은 노력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곳으로, 새로운 기 회와 희망의 터전으로 부상하고 있다. 이 러한 여건 변화에 힘입어 전남도는 미래 블루 오션인 수산업의 발전 및 어민과 귀 어 도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

전남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듯 기쁜 소 식이 전해졌다. 최근 발표되고 있는 통계 들을 보면 전남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.

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'2018년 농

전남 어촌에 젊은이들이 몰려온다

가 및 어가경제조사' 결과를 보면 어가 평균 소득이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작년 전국 어가의 평균 소득은 5184만 원으로 사상 처음 5000만 원을 넘어섰고, 전년 4902만 원 보다 5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어업 형태별로는 양식 어가의 소득이 79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연령별로 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 소득이 1억 3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양식 어 가에 종사하는 젊은 경영주의 소득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통계청은 지난달 '2018년 귀농어·귀 촌인 통계 자료'도 발표한 바 있다. 2018년 한 해 전국에 917가구 1285명이 귀어해 지난해 906가구 1359명보다 가 구 수는 11가구 증가한 반면 가구원 수 는 74명이 감소했다. 하지만 전남은 322 가구 449명이 귀어해 지난해보다 가구 수는 37가구가, 가구원수는 31명이 증가 하여 전국에서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혔다.

귀어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하가 49%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귀어인 들이 전남을 찾고,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 업 귀어인이 234명으로 69.2%를 차지했 다. 도시의 젊은 청년들이 제2의 인생을

전남에서 수산업으로 열고 있는 것이다. 두 가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어업

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 려들고 있는 것이다. 앞으로 김 등 해조 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수요가 증가한 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양식 어업을 하 려는 귀어 도시민들 또한 더 증가할 전망

전남으로 귀어인들이 찾아오는 이유 는 남해와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 전국 최고의 수산 입지 조건을 갖췄으며, 어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 어장의 74%가 전남에 있고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가 수가 2413호로 고소득 을 올리는 어업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있다. 또한 김, 전복, 넙치 등 양식 품 종이 다양하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6%를 점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다 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전남에서는 귀어인들이 안정적으로 어 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과 다 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귀어인 들이 창업과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전 문 수산인 양성을 위한 수산업 경영인 육 성 사업 및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

사업, 귀어·귀촌 홈스테이 사업 등을 지 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. 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이론·실습·체험 교육과 체류형 전 문 교육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에 귀어 학교를 ▽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특히 청장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9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의 경우 귀어를 희 망하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많다. 올해는 87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인데, 현재 78명이 선정되어 1월부터 매월 80~100 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. 또한 정부 정책 사업 중 융자 사업의 경 우 2%의 금리 중 도와 시·군에서 1%를 지원하고 귀어인은 1%만 부담하도록 경 제적 부담을 줄여 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.

전남은 풍부한 수산 자원과 깨끗한 자 연 환경, 20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 어매년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. 어촌에 젊은이들이 늘어나고, 어가 소득도 상승 하고 있다. 몇 년 안에 도시 근로자 소득 을 추월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있다.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남 어촌은 도시 젊 은이들에게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다. 용 기 있는 도시 젊은이들의 도전과 성공적 인 귀어 생활을 기대해 본다.

無等鼓 🕠

어릴 적 여름철이면 어머니는 시장에 서 개고기를 사다가 구탕(狗陽)을 끓여 주셨다.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. 여 름철 몸에 좋다며 구탕을 권하시는 어머 니 성화를 이길 수는 없었다. 무슨 음식 이냐고 여쭈면 아버지는 그저 구탕이라 고 하셨다. 그때는 구탕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오리탕과 맛이 비슷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한 그릇을 비워내곤 했다. 중학생이 되면서 구탕이 보신탕인 사실 을 알고는 되도록 먹지 않으려 애썼다.

아들이 꺼리는 것을 안 어머니는그때부터오리 탕을 끓여 주셨다.

개고기 요리인 보신탕

은 왜 견(犬)탕이 아니라 구(狗)탕이라 할까? 같은 개라도 '견'과 '구'의 쓰임새 가 다른 탓이다. 견(犬) 자는 큰 개의 모 양을 본 뜬 상형문자로, 먹지 않는 기르 는 개를 의미한다. 충견이나 맹견 등의 단어에서 이를 알 수 있다. 구(狗)는 짐 승을 뜻하는 개사슴록 변에 소리로 구별 하는 구(句)가 붙은 문자로, 시골에서 부 르는 백구·황구처럼 주로 식용 개에 붙는 다. 보신탕이 구탕(狗湯)인 이유이다.

'구'가 식용의 의미로 쓰인 단어는 아

예 향

사 진

제 부 220-0663

사 회 부 220-0652

전 남 본 부 220-0642

주 흔하다.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충 실했던 사냥개가 쓸모없게 돼 잡아먹는 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토사구팽(兎死狗 烹), 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양두구육(羊頭狗肉) 등 식용에는 어김없 이 '견' 대신 '구'가 붙는다. 또한 주인을 향해 짖는 배은망덕한 개인 새구폐주(寒 狗吠主), 여기저기 참견할 데 가리지 않 고 끼다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는 구반상실(狗飯橡實) 등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'구'가 붙는다.

구탕과 견탕

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통해국제사회로진출하 면서 보신탕 문화가 큰 저항에 부딪혔다. 여기

에 애완동물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 서 보신탕집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.

곧 초복이다. 복날만 되면 개고기가 음 식문화의 하나인가 아니면 그저 야만인 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진다. 법적으 론 개고기 유통이 불법이지만 국민이 즐 기는 음식이라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 다. 이제는 애완견과 식용 개를 확실히 구별하거나, 개고기의 식용 여부를 명백 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

/채희종 사회부장 chae@

光则日報 The Kwangju Ilbo

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(일간) 우)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

대표전화 222-8111 / 220-0551 (지사 지국 (구독 신청 배달 안내)) 광고문의 062-227-9600

경 영 지 원 국 220-0515 문화사업국 220-0541 편집국안내 〈대표 FAX 222-4918〉 편 집 부 220-0649 부 220-0661 ⟨FAX 222-8005⟩ (FA X 222-0195) 문 화 기 획 관 리 국 227-9600 업 무 국 220-0551 치 부 220-0632 육 부 220-0633

부 220-0692

부 220-0694

(FAX 222-0195) ⟨FAX 222-0195⟩ 디 자 인 실 220-0536 서울 지사 02-773-9331 ⟨FAX 02-773-9335⟩ 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